

문화자본론과 한국 사회 상징적 구별구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Cultural Capital Theory and the Symbolic Structure of Distinction in Korean Society

박은혜(Park, Eun-Hye)*

최셋별(2026). **취향과 불평등의 사회학: 한국 사회 문화자본과 구별짓기 지형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와 그의 대표이론인 문화자본론은 사회과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름이자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숙함과는 별개로 난해한 이론과 개념어로 인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은 때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출간된 『취향과 불평등의 사회학: 한국 사회 문화자본과 구별짓기 지형도』는 부르디외의 지적 유산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저작이 부르디외의 생애와 주요 이론을 충실히 소개하면서도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논의되고 맥락화되는 다채로운 학술적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약 500여 페이지의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장부터 2장까지는 부르디외의 이론과 국외 후속 연구자들의 작업을 통해, 해당 이론의 생성, 발전, 국제적 확장과 재해석의 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장 ‘피에르 부르디외와 문화자본론’에서는 부르디외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사회학으로 승화시켰는지부터 시작하여,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프랑스의 여러 불평등에 맞섰던 그의 삶의 궤적을 소개한다. 이어서 문화자본론을 체계적으로 다룬 그의 대표저작 『구별짓기』를 살피는데, 핵심개념들과 주요한 대립적 축들 그리고 방법론을 중심으로 부르디외 이론이 폭로했던 문화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아울러 프랑스의 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향한 부르디외의 비판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의 논의가 프랑스를 포함하여 전 세계 문화정책에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미친 영향도 조명한다. 2장 ‘부르디외를 넘어서’에서는 프랑스의 부르디외 이론이 다른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되었는가를 다룬다. 특히 미국사회학자들이 문화자본론이 다른 사회와 시대에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방법론적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럼에도 이들은 문화가 계급 체계를 유지하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객원교수, ch5800@naver.com

고 공고화한다는 부르디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방법의 정교화를 통해 부르디외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간 옴니보어론의 탄생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고찰한다.

둘째, 3장부터는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에서 발견된 한국 사회 상징적 구별짓기를 살펴본다. 3장 ‘한국 사회에 문화자본은 부재했는가?’에서는 이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입되던 시기에 가해졌던 회의적 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문화자본의 단초를 보여준 연구사례를 경유하며 부르디외와 관련된 국내 논의의 발전과정을 소개한다. 해당 연구사례로는 1980~90년대에 한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서양고전음악을 통해 명문학교에 진학하고 결혼을 통해 지위를 재생산하는 과정과 함께, 능력주의 사회에서 영어실력이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한다. 4장 ‘문화자본의 측정과 한국 사회에의 적용’은 부르디외 이론 및 후속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발판 삼아, 대규모 양적 조사를 통해 한국 문화자본의 지형도를 측정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풍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와 구별짓기의 구성을 밝혀내고, 상징적 위계가 계급과 세대에 중첩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마지막 5장 ‘일상 생활 속 지위표식: 문화자본으로 구별짓기, 그 상징적 경계에 관하여’에서는 공간, 영화, 스포츠, 패션, 음식, 소비라는 일상적인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구별짓기 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의 문화적 위계의 구분축인 계급과 세대가 각 문화 속 구별짓기에 있어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저작을 통해 독자들은 프랑스에서 탄생한 문화자본론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르디외 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 이론이 고정되고 경직된 도식으로 이해되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며 특수한 역사와 구조를 형성해온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그의 이론을 설명력이 떨어지는 외래의 이론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한국에서 축적되어온 연구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자본론이 그 핵심적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창의적으로 응용될 때 강력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적 개념’(최선헌, 2026, p. 1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저서는 부르디외를 다룬 기존의 국내 단행본과는 달리, 부르디외 이론에 활용되어 온 방법론의 초기 형태부터 후속 연구자들이 제기한 비판 그리고 이들이 다듬어간 계량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깊이 있게 조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저자와 연구단이 한국 문화의 지형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하고 활용했던 설문지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도구로 연구를 수행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국내 부르디외 연구의 대표 학자인 저자가 오랜 세월 진행해 온 연구의 궤적을 망라한 결과물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르디외 논의를 학술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방법론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편 무용과 관련된 사회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 이 책은 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국내 문화의 지형도 속에서 무용 관련 장르와 활동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4장 2절 ‘한국 사회의 상징적 위계: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는 무엇인가?’에서 무용에 대한 인지적 위계나 실천의 지형을 살피고, 3절 ‘한국 사회의 문화지형도, 2011’에서 네 개로 구분된 문화계층이 각각 어떠한 무용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다룬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춤들이 동

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통념과 달리 한국의 계급 구조와 세대 경험 위에서 무용 관련 실천들도 사회적으로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이 저작은 부르디외 이론을 활용하여 무용을 포함한 다채로운 문화의 사회적 상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